

## ‘지난해 고용률’ 광주 ↓·전남 ↑ …농림어업만 모두 증가

호남통계청, 고용동향…광주 0.6%p 감소·전남 0.5%p 증가  
감소세 큰 분야, 광주-건설업·전남-전기운수통신금융업중

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원년인 지난해 광주·전남 지역 고용률 통계 지표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.

양 지역 고용률은 2019년 대비 1%p 내에서 소폭 증가 내지는 감소 현상을 보인 가운데 두 지역 모두 농림어업 분야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.

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‘2020년 광주·전남 고용동향 통계자료’에 따르면, 지난해 광주지역 고용률은 58.7%로 2019년 대비 0.6%p 하락했다.

광주 취업자 수는 74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(-0.3%)이 감소했고, 경제활동 인구는 7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(-0.1%)이 줄었다.

실업률은 3.9%로 전년 대비 0.2%p 상승한 가운데 실업자 수는 3만명으로 1년 전 보다 1000명(4.2%)이 늘었다.

비경제활동 인구는 4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(2.2%)이 증가했다.

산업별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농림어업 분야로 종사자 수가 2019년 1만3000명에서 2020년은 1만6000명으로 3000명(19.1%)이 늘어났다.

가장 감소세가 큰 분야는 건설업종으로 7만2000명에서 4000명(5.4%)이 감소했다.

지난해 전남지역 고용률은 63.9%로 2019년 대비 0.5%p 증가했다.

취업자 수는 97만40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, 경제활동 인구는 99만8000명으로 1년 전 보다 2000명(-0.2%)이 감소했다.

실업률은 2.4%로 전년 대비 0.2%p 하락한 가운데 실업자 수는 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(-7.5%)이 줄었다.

고용률 소폭 증가에 힘입어 비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 보다 8000명(-1.5%)이 감소한 52만8000명으로 조사됐다.

전남 지역도 광주와 동일하게 산업별로 농림어업 업종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.

전남지역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9년 1만1000명에서 2020년 20만5000명으로 1만4000명(7.2%)이 늘어났다.

가장 감소세가 큰 분야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종으로 7만8000명에서 4000명(-5.4%)이 감소했고,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도소매숙박음

식점 업종도 17만9000명에서 5000명(-2.5%)이 줄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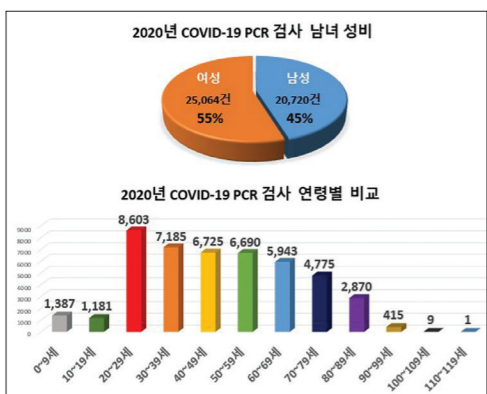
기동취재본부



코로나19 방역 전통시장

13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서구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을 하고 있다.

## “20~30대 검사·고령층 확진율 높아”…전남대병원 분석



전남대학교병원이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검사결과 고령층의 확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1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(PCR) 검사를 총 4만5784건 실시했다.

검사자는 20대가 8603건(18.8%)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7185건(15.7%)으로 가장 많았다. 이어 40대 6725건(14.7%), 50대 6690건(14.6%), 60대 5943건(13.0%), 70대 4775건(10.4%), 80대 2870건(6.3%) 순이다.

지난해 2월7일~12월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 4만5784건

20대 8603건 최다…양성 확진율, 건수 대비 10대 10.3%

검사 건수 1181건 중 122건인 10.3%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9.7%, 70대 8.1%, 50대 7.8%, 40대 5.3%, 80대 4.9%, 30대 4.2%, 20대 4.1% 순이었다. 10대를 제외하면 양성 확진율은 고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성별로는 여성이 검사건수 2만5064건 중 양

성 확진이 1585건, 남성은 2만720건 중 양성 1321건을 기록했다.

월별로는 검사 첫 달인 2월 891건이었지만 3월 19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6월까지 1200여건을 유지하다 7월 3700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.

1일 평균 검사 건수는 139건이며, 11월14일 1949건으로 가장 많았다.

또 전남대병원 직원 대상 전수조사(4회)를 시행했던 11월 1만5614건, 12월 1만1025건을 기록하기도 했다.

김미희기자

## 함평군, 귀농·귀촌분야 지원 대상자 모집

다음달 3일까지…귀농 창업 3억원·주택구입 7500만원 지원

함평군은 내달 3일까지 2021년 귀농귀촌분야 보조·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.

올해 군은 총 사업비 3억4600만원을 투입해 귀농·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.

모집 규모는 총 4개 사업 29개 농가로 ▲귀농인 영농정착지원(농가당 2000만원) 13개소 ▲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농가당 800만원) 4개소 ▲소규모 하우스 지원(농가당 400만원) 10개소 ▲귀농인 관정개발 지원 사업(농가당 700만원) 2개소 등이다.

함평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용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.

고정금리 연2% 또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 당 최대 3억원,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용자 지원할 예정이다.

신청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(전입일 기준)하고 함평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민이다.

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용자지원 사업은 다음 달 전남도에서 배정한 금액에 따라 모집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.

세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친환경농산과에 문의하면 된다.

함평=김광훈기자

한국언론진흥재단  
Korea Press Foundation

#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

코로나19,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!

**강도 높은 #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**

외출을 자제하고  
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!

마스크 쓰기, 손씻기 등  
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!

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 
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!